

현대 서울 말의 모음 음가

(A Phonetic Description of Korean Vowels)

李 炫 馥

(서울대학교)

내 용

1. 머릿말
2. 서울말의 정의
3. 환경에 따른 모음음가의 변동
4. 모음 음가 상론
5. 맺는말

1. 머릿말

이 논문에서 필자는 서울말의 모음 음가를 음성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서울말의 모음 음가에 대한 논문은 지금까지 나온 것이 별로 많지도 않거니와 더러 나온 논문도 필자의 의견으로는 음가를 정확하고 체계있게 기술한 것이 별로 없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Daniel Jones 교수가 창안한후 국제음성학회(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에서 채택하여 오랜 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모음 사각도(Vowel Quadrilateral) 위에 우리말의 모음음가가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문제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여기서 시도하는 모음음가의 기술은 청각인상에 따라 모음사각도 상의 기본 모음(Cardinal Vowels)과 비교 설명하는 방법을 택했고 모음 사각도 위에 해당위치를 표시하여 좀 더 정밀한 음가의 기술을 꾀했다.

2. 서울말의 정의

말을 정의하는 데는 대체로 세가지 조건이 따른다. 그것은 시간, 공간 그리고 사회적조건이다.¹ 가령 중세의 국어나 영어가 오늘날의 국어나 영어와 서로 다는것은 시간상의 차이에 따르는 말의 차이요, 영국에서 표준어의 위치에 있는 남부 영어(Southern English or Received English)가 기타 지역의 영국 방언과 다르고, 또 우리말의 경우에 서울말이 경상, 전라, 평안도 지방의 말과 다른 것은 공간에 의한 차이 즉 방언의 차이이며, 끝으로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정도의 차이에 따르는 말의 차이는 한마디로 사회적 조건에 의한 것으로 볼수

¹ 허용, 「언어학 개론」, pp.30-31.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위에 말한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적용해야만 음운, 문법, 어휘 등에서 어느 정도 단일성을 갖는 일정한 체계를 한정할 수가 있으므로 어떤 특정어의 특정 방언 특히 한 나라말의 표준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위에말한 세가지 조건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표준말의 위치에 있는 서울말의 정의는 어떠한가? 오래전부터 서울말이란 “서울의 종류 계급이 쓰는 말”²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이를 다시 풀어보면 서울사람중에서도 종류계급이 쓰는 말이라는 사회적인 제한 조건이 붙어있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영국에서 표준영어로 되어 있는 Received English를 정의할 때에 “교육 받은 사람이 쓰는말”이라는 조건이 가미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같은 서울말의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말에 토대를 둔 우리나라 표준 말의 정의가 어느정도 언어 현실에 맞느냐 하는 점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와 같은 서울말의 정의가 언어 현실과 어긋나는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오늘날 서울 사람의 한계가 명확치 않다. 서울에서 출생한 사람을 흔히 서울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말을 중시해서 볼때에 부모가 본래부터 서울사람이냐 아니면 기타지방출신으로 서울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서울말에 대한 영향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말을 쓰는 서울사람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려면 부모와 조부모 때부터 서울에서 계속 살아 왔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서울의 종류계급이라는 규정이 대단히 모호하다. 팔일오 이후 여러 차례의 사회적인 변혁과 전쟁을 겪는 동안 민족의 이동이 심했고 그 중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는 각기 고유한 방언을 사용하는 각 지방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을 뿐아니라 각 방언이 서울말에 준 영향도 컸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사회적인 변혁이 있은후 오늘날 서울에서 종류계급이 있느냐, 있다면 구체적으로 뭐냐하는 것이다. 팔일오 전의 종류 계급이 오늘날까지 존속해 내려 오는 경우가 있느냐 그리고 있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의심이 상당히 간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두가지 조건 즉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온 토박이 서울사람이라는 것과 종류계급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서울인구 오백만명 중에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적은 수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수의 토박이, 그것도 한계가 명확치 않은, 서울 사람이 쓰는 말을 서울말 또는 우리나라 표준말로 보아야 하느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서울 말의 정의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될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표준어의 정의에 어긋나는 부적합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말한 여러 조건은 모두 순수한 서울말을 한정해 놓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서울말의 단일성이 규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즉 서울 사람이 쓰는 서울말이라고 해서 모두 같지는 않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뚜렷한

² 허웅, op. cit., p. 30.

증거는 연령차이에 따르는 서울말의 차이이다. 예를들어 요즘 십대 이십대의 젊은 층은 삼십대 이후의 서울 사람들이 대체로 규칙적으로 구별하는 /e/(개)와 /ɛ/(H)를 잘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어서 /게/(crab)와 /개/(dog) 그리고 /베/(hemp cloth)와 /베/(pear) 따위의 단어들을 혼동하는 일이 많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젊은 층의 발음에 있어서 /H/의 음가가 폐모음(close vowel)쪽으로 상승한 데에 혼동의 원인이 있는 것 같다.³ 삼십대 이후와 삼십대 이전을 구별하는 특징은 위에 말한 /H/와 /게/의 혼동 이외에도 모음의 장단을 혼동하거나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다. 특히나 /ㄱ/는 길게 발음될 때와 짧게 발음 될때의 음가가 뚜렷하게 달라서 삼십대 이후의 서울사람 발음에서는 대체로 [æ:]와 [ʌ]로 분명히 구별을 하지마는 삼십대 이전 젊은 층은 이를 잘 구별하지 않고 모두 [ʌ]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다.

지금까지 검토한 서울말의 정의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돌아볼 때에 서울말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쉬운일이 아닌 것을 알수 있다. 이글에서 필자는 서울말을 “서울에서 출생했거나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자라온 삼십세 이상의 교양있는 사람이 쓰는 (다른 지방 사투리가 섞이지 않은)말”이라고 우선 정의해 놓고자 한다. 이 필자의 정의를 그전의 정의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존속유무와 그 숫자가 의문시되는 옛날식의 “중류”라는 조건을 제거한 대신 교양이 있는 삼십세 이상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세웠으며 서울 사람의 한계를 좀 더 확대시켰다는 것이 골자이다.

3. 환경에 따른 모음음가의 변동

말소리는 언제나 일정한 음가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앞 뒤의 음성 환경에 따라서 그 음가가 달라지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모음의 음가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에 의한 음가의 변동을 다 고찰해야 하며, 어느 일정한 위치, 예를들어 앞뒤에 아무 소리도 없는 독자적인 위치에서 나는 소리 값만을 관찰함은 부분적인 조사에 불과하여 불충분하다.

서울말의 모음 음가의 변동은 다음의 두 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 고찰할 수가 있다: a) 강약과 장단에 따르는 변동, b) 앞뒤에 있는 소리에 따르는 변동, 이 두가지 항목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a) 강약과 장단에 따른 음가의 변동⁴

³ 이기문, 「국어사개설」, 180-181.

“ä (필자의 ε)와 e의 구별이 흐려져 가는 경향을 특히 젊은 세대사이에서 볼수 있다. 이경향은 특히 방언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⁴ 장단에 따른 모음음가의 변동을 지적하고 상세히 기술한 논문으로는 김선기 교수가 1937년에 영국 런던 대학에 M.A.논문으로 제출한 ‘Phonetics of Korean.’이 있고 이논문은 1971년에 서울서 출판됐다.

Sheon-Gi, Gim, *Phonetics of Korean*, p.20.

“The shorter vowels are more or less centralized, whereas the longer ones are decentralized. The timber difference between the long and short vowels is clear enough for a trained ear to hear, and yet it is negligible for practical purposes.”

서울말의 모음은 강하게 발음되느냐 아니면 약하게 발음되느냐, 또 길게 또는 짧게 발음되느냐에 따라서 음가에 차이가 나므로 모음의 음가를 세밀히 관찰하려면 강약과 장단의 영향을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강약과 장단의 모음음가에 주는 영향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ㄱ) 강세가 있는 긴 모음, ㄴ) 강세가 있는 짧은 모음, ㄷ) 강세가 없는 모음.

ㄱ) 강세가 있는 긴 모음: 강세가 있는 긴 모음은 그 음가가 어느 경우 보다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한 음운의 대표적인 음가로 삼기가 좋다. 특히 앞뒤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될수 있는 대로 홀로 날 때의 소리값을 대상으로 하는게 좋다. 이제부터 강세가 있는 모음은 해당 모음 바로 앞에 //를 더하고 긴모음은 모음 다음에 /:/를 더해 표시한다.

예: “없다”의 /ㄷ:/는 그 음가가 중설모음 [ə] 또는 그 보다 약간 후퇴한 모음이어서 [ə:]나 [ə-:]로 표시할 수 있다.

“아”의 /ㅏ:/는 기본모음 제 오번 [a]보다 전진한 모음이므로 [a+:/]로 표기할 수 있다.

ㄴ) 강세가 있는 짧은 모음: 강세는 있지만 길이가 짧은 모음은 역시 음가가 상당히 명확하지만 위에서 말한 강세가 있고 길이가 긴 모음과 음가가 다른 수가 많다.

예: “업다”의 /ㅓ:/는 제이차 기본모음(Secondary Cardinal Vowel) 육번[Λ]에 가까운 모음이며,

“앞”의 /ㅑ:/는 기본모음 제사번에서 후퇴한 모음이므로 [a-]로 나타낼 수 있다.

ㄷ) 강세가 없는 모음: 강세가 없는 모음은 대개 짧게 나지만 간혹 길게 나타날 때도 있다. 그러나 강세가 없을 때에는 길진 짧은 음가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경우를 구태어 구별하지 않으려고 한다. 강세가 없는 모음은 위에서 말한 ㄱ) ㄴ)의 경우와 달리 그 음가가 대체로 분명치 않은 것이 특색이다.

예: “죄 없는”의 /ㅚ:/는 약간 후퇴한 중설모음 또는 제이차 기본모음 육번 [Λ]보다 조금 높고 전진한 모음이므로 [ə-]와 [Λ+]로 각각 표시할 수 있으며, “사번”의 /ㅜ:/도 위와 비슷한 음가를 가졌다.

“아/마”의 첫번째 /ㅏ:/는 상당히 낮은 중설모음으로 [e] 또는 [ɐ]이다.

위에 든 예중에서 /ㅚ 없는/이 첫째 음절에만 강세가 있고 음운론적으로 긴 모음인 /없/의 /ㄷ:/가 짧은 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일상 회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국어 음성학의 연구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연구 방법상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이 정적인 연구였고 동적인 것이 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대화를 할 때에 쓰이는 소리값을 관찰하는데에 주력하지 않고, 관찰하기가 쉬운 어느 특정위치에서만 단

음가를 살펴 보는데에 그쳤기 때문에 불충분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이 논문에서 모음음가를 고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b) 앞뒤에 있는 소리에 따르는 음가의 변동

이것은 앞뒤에 오는 소리의 영향으로 음가가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데, 가령 /글/의 /-/는 /늘/의 /-/보다 더 뒤에서 나는 후모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물론 /-/를 선행하는 /ㄱ/와 /ㄴ/의 영향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또 /붓/의 /u/는 /복/이나 /붕/의 /u/보다 더 앞에서 발음되는 모음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모음의 음가를 결정 또는 변동시키는 두가지 큰 요인으로 강약과 장단 그리고 앞뒤의 음성 환경을 지적했지만 이 이외에 필요한 요인이 있으면 수시로 해당되는 곳에서 논하기로 한다.

4. 모음 음가 상론

그러면 이제부터 위에 말한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말의 모음 음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고찰한 모음과 고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 /e/(e), /ɛ/(ɛ), /a/(a), /o/(o), /ʊ/(u),
/ɐ/(ə, ʌ), /-/(w), /ɣ/(y), /ɯ/(ɰ)

위에 든 모음가운데 /y/와 /ɰ/가 별개의 모음 음운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중모음 /wi/와 /we/로 각각 풀이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음운의 설정과 그 수효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음가의 고찰이 문제이므로 편의상 별개의 음소로 나누어 관찰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기본 모음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일차 기본모음은 PCV, 제 이차 기본모음은 SCV 로 약칭한다. 그리고 국제 음성학회의 원칙을⁵ 따라 음성기호 뒤의 (+)표는 앞으로 전진한 음가를, (-)표는 뒤로 후퇴한 음가를, 그리고 음성기호 밑의 (·)표는 닫힌 음가 즉 더 혀의 위치가 높은 폐모음을, (.)표는 열린음가 즉 혀의 위치가 낮은 개모음을 나타내며 음성기호 위에 얹힌 (·)표는 음가가 중심화(centralization)함을 그리고 (~)는 비음화(nasalization)를 표시 한다.

예 : [e]=PCV 제 일변

[ʌ]=SCV 제 육변

[a-]=PCV 제 사변 [a]보다 후퇴한 모음

[o+]=PCV 제 칠변 [o]보다 전진한 모음

[ʌ̄]=SCV 제 육변 [ʌ]보다 더 높은 모음

[w̄]=SCV 제 팔변 [w]보다 낮은 모음

⁵ *The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pp. 16-17.

[ɔ̃]=PCV 제 칠번 [o]가 비음화 한 것

[ë]=PCV 제 이번 [e]가 중심화 한 모음

[ü̃]=PCV 제 팔번 [u]보다 낮은 모음이 비음화 한 것

4.1 모음 /ɪ/(i),⁶

전설(front of the tongue)을 경구개(hard palate)로 향해 올려서 내는 폐모음(close vowel)으로서 음운론적으로 /ɪ/ 또는 /i/로 표시할 수 있으나, /ɪ/는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음가의 변동을 나타 낸다.

ㄱ) [ɪ:]. [i]에 가까운 모음이나 대체로 PCV 일번 보다는 약간 낮고 후퇴한 음가이다. 입술 모양은 평순(spread 또는 unrounded)이며 혀는 긴장을 수반한채 발음되는 긴장 모음(tense vowel)이다. [i-]

예 : '이' 'two', '일' 'work'.

ㄴ) [ɪ]. 위에서 기술한 긴 [ɪ:] 보다 음가가 일반적으로 더 낮고 후퇴해 있으며 혀의 긴장이 없는 이완모음(lax vowel)이다.

예 : '입' 'mouth', '일' 'one', '밑'.

ㄷ) [ɪ]. 강세도 없고 짧은 [ɪ]는 [ɪ:]보다도 더 낮고 후퇴한 모음이나 영국영어의 'it'의 [i]보다는 높고 전진한 모음이며 역시 혀의 긴장이 없는 이완 모음이다.

예 : 이'날, '기분, '사람이.

ㄸ) 앞에 오는 소리가 /ㄴ, ㄷ, ㄷ, ㄷ, ㅅ, ㅆ, ㅈ, ㅉ, ㅊ/와 같은 치조(alveolar) 및 경구개(palatal) 자음일 경우에는 음가가 대체로 전진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짧고 강세가 있는 [ɪ]는 특히 이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ㄱ)에서 말한 [ɪ:]의 음가와 같다.

예 : '덜다, '님, '씩씩하다, '띠, '직접, '찐빵.

4.2 모음/ɛ/(e).

전설을 경구개로 향하여 반폐(half-close)와 반개(half-open) 사이의 높이로 올려서 내는 전설모음으로서 /ɛ/는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음가의 변동을 나타낸다.

ㄱ) [ɛ:]. PCV[e]보다 약간 낮고 후퇴한 평순 모음이다: [ɛ]-.

예 : '헤프다, '베다, '메다, '에끼.

ㄴ) [ɛ]. 위에서 기술한 [ɛ:]보다도 좀 더 낮고 후퇴한 모음이다.

예 : '에워 싸다, '헛 갈리다, '메우다.

ㄷ) [ɛ]. PCV[ɛ]보다 높고 후퇴한 모음인데 후퇴하는 정도는 개인차가 많다: [ɛ-]. 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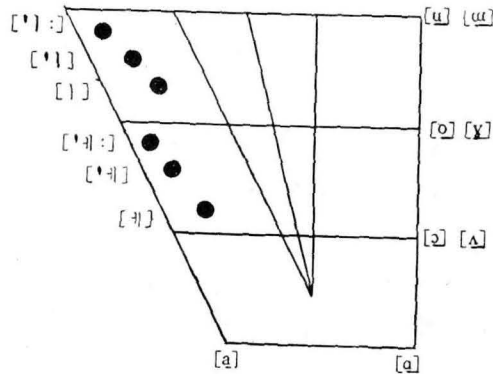
⁶ /ɪ/(i)에서 사선속에 있는 ɪ는 음운 /i/를 한글로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ɪ:], [ɪ] 및 [ɪ]는 특정 환경하에서의 allophonic variants, 즉 이경우에는 강세가 있고 긴 /ɪ/, 강세가 있고 짧은 /ɪ/ 그리고 강세가 없고 짧은 /ɪ/의 실현음가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표시된 음가는 다시 국제 음성기호로 []안에 표시했다. 이 방법은 다른 모음에도 모두 같이 적용된다.

가 후퇴하는 정도는 남녀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남자는 여자보다 후퇴한 모음을 쓰는 경우가 많고 남자의 발음에서도 점잖고 위엄있는 말씨일수록 후퇴한 모음을 쓰는 경우가 많다.

예 : '다음에, '신세, '삼베, '화폐.

ㄷ) 반모음 /j/나 4.1의 ㄷ)에서 말한 치조 또는 경구개 자음이 앞에 올때는 /기/모음의 음가가 약간씩 [e]쪽으로 가까워 지는 경향이 있는 바, 특히 이러한 환경에서 나는 ['기:]는 음가가 [e]로 나는 수가 많다.

예 : '예, '예고, '네, '셋, '뗏목, '제일.



4.3 모음/ㅁ/[ε].

전설을 경구개로 향하여 반개(half-open) 부근의 높이로 올려서 내는 모음으로서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음가의 변동이 있다.

ㄱ) [ʰ:]. 이는 PCV[ε]보다 약간 낮고 후퇴한 평순 모음이다: [ε-]. 대체로 여자 발음보다 남자의 발음에서 음가의 후퇴가 심하다.

예 : '애, '배, '해빙, '매수.

ㄴ) [ʰ]. [ʰ:]보다 약간 음가가 높아서 후퇴한 PCV 제 삼번에 해당한다: [ε-].

예 : '액, '백, '매우, '패인.

ㄷ) [ʰ]. 반개의 위치 또는 그보다 좀 더 높이 전설을 올려내는 모음이되 상당히 후퇴한 음이다: [ε-], [ε-]

예 : '이백, '삼백, '이해, '연애.

따라서 짧고 강세가 없는 [기]와 [ʰ]는 음가가 대체로 같은 경우가 많아서 의식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때 이외에는 구별이 잘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명확히 의식적으로 발음을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강세가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미 강세가 없는 모음은 아닌 것이다.

예 : '삼배 'three times' '서울 애 '서울 출신 아이'

cf. '삼베 'hemp cloth'. cf. '서울에 'to Seoul'

ㄷ) 반모음 /j/나 치조 또는 경구개 자음이 앞에 올 때는 /ㅏ/의 음가가 전진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다음의 예에서 콜론 전후에 있는 /ㅏ/는 음가가 서로 다르다.

예 : '아무 : '야밤, '아 : '야, '자극 : '아무개, '낙 : '막, '산수 : '반주.

4.5 모음/ㅓ/(o).

후설(back of the tongue)을 반개와 반폐의 사이로올려 내며 원순작용이 있는 원순 후설 모음이다. 환경에 따른 다음과 같은 음가의 변동이 있다.

ㄱ) ['ㅓ:]. PCV 제 칠번 [o]보다 다소 낮은 모음이며, 때때로 PCV[o]보다 뒤로 더 회퇴하고⁷ 낮은 음가로 나타나기도 한다: [ɔ] 또는 [ɔ-]. 그리고 원순작용(lip rounding)을 그 정도에 따라 강/보통/약으로 삼분한다면 /'ㅓ:/ 모음의 원순은 보통이다.

예 : '오, '보상, '호박, '공.

ㄴ) ['ㅓ]. PCV[o]와 [ɔ]의 중간음으로 ['ㅓ:]보다 약간 낮고 앞으로 전진해 있으며 원순 작용이 ['ㅓ:]때보다 약하나 다음의 [ㅓ]때 보다는 강한 모음이다: [ɔ] 또는 [ɔ+].

예 : '육, '봄, '온도, '혼자, '목적.

ㄷ) [ㅓ]. 개인차가 많으나 대체로 PCV[ɔ] 보다 약간 높고 ['ㅓ] 보다도 더 전진해 있으며 원순작용이 약 한 모음이다; [ɔ+].

예 : '사요일, '바보, '인도, 육'이오/ju'gio/, '사고.

ㄹ) 반모음 /j/나 치조 또는 경구개 자음이 앞에 올 때는 /ㅓ/의 음가가 중심화 하는데 특히 ['ㅓ:]나 [ㅓ]의 경우에 심하다.

예 : '오십 : '요결, '오장 : '소장' '몸 : '좀, '육 : '육, '육색 : '녹색.

ㅁ) 젊은 층, 특히 여자는 문장의 끝에 오는 [ㅓ](대개 동사의 어미)를 SCV 제 육번 [ʌ]보

⁷ Daniel Jones 의 기본후모음(Cardinal Back Vowels)은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후모음중에서도 가장 뒤에서 나는 후모음이라고 정의 해 놓았기 때문에 기본모음 오번 [o]보다 더 후퇴한 모음이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가 된다. Jones 의 정의에 따르면 어느 모음이든 기본 후모음 보다 더 후퇴한 후모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Jones 의 주장은 그의 여러 논문과 저서에 나타나있다. 예컨대 그의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p.30을 보면, "The Cardinal Vowels have by definition tongue positions as remote as possible from 'neutral' position. Accordingly if other vowels are represented by dots on the above geometrical figure, they will be situated either on the circumference of that figure or within it."라고 하여 기본모음이란 'neutral' position 즉 schwa vowel[ə]의 위치에서 가장 먼곳에서 발음되는 모음들이라고 했으니 후모음 역시 기본후모음이 가장 후퇴한 후모음이라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Jones 교수가 별세하기 몇달전 런던에서 그를 직접 만나 기본모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본 후모음 5,6,7,8번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후퇴한 후모음이라는 그의 주장을 필자는 확인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필자는 기본후모음에 관하여 Jones 교수와 의견을 달리한다. 다시 말하면 Jones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후모음은 최후방 후모음이 아니며 그보다 더 후퇴한 후모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필자는 수년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러한 기본후모음보다 더 후퇴한 후모음을 필자는 기본후모음 기호다음에 [-]표를 더해 표시해왔다. 우리말의 ['ㅓ:]가 기본모음 [o]보다 낮고 더후퇴해 있을 때의 음가 [ɔ-]는 바로 그러한 음가의 한 예이다.

cf. Hyun Bok Lee, "A Remark on the IPA Cardinal Back Vowels", Maitre Phonétique 130, pp. 26-29.

다 상당히 전진한 모음으로 내는 것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원순작용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나 있을 때에도 아주 약한 원순에 불과하다; [ʌ+] 또는 [ɔ+].

예 : 그'래요, '가요, '했어요, '아네요.

위의 예에서 볼수 있드시 이러한 [ɹ]의 앞에서 항상 /j/가 나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ɹ]의 중심화 또는 전진화의 원인이 된다. 불어의 homme, comme, pomme 에서 나는 [ɔ]는 위에 말한 [ɹ]와 음가와 혀의 위치가 아주 유사하나 단지 원순작용이 훨씬 강하다.

4.6 모음/ɹ/(u).

후설을 반폐(half close)와 폐(close)의 사이로 올려서 내는 후설 원순 모음으로서 다음과 같이 환경에 따른 음가의 변동이 있다.

ㄱ) [ɹ:]: PCV 제 팔번 [u]보다 약간 낮은 모음이거나 또는 거기서 약간 전진 혹은 후퇴한 긴장모음이나 원순작용은 보통이다; [ɹ], [ɹ+] 또는 [ɹ-].

예 : '우 'right', '우군, '부자, '운수, '구국.

ㄴ) [ɹ]: 위에서 기술한 [ɹ:]보다 더 낮고 전진한 모음이며 원순작용도 [ɹ:]보다 약하다; [ɹ+] 또는 [ɹ-].

예 : '우열, '혹다, '문, '복, '뚝.

ㄷ) [ɹ]: 위에서 기술한 [ɹ:]의 음가보다도 낮고 전진한 즉 중심화한 모음으로서 원순작용이 아주 약해서 때로는 원순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많다; [ü], [ɹ+] 또는 [+].

예 : '새우, '겨우, '가부, '신부, '어부, '문교부, '부부.

ㄹ) 반모음 /j/나 치조 및 경구개 자음이 선행할 때는 /ɹ/의 음가가 전진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ɹ:]와 [ɹ]의 경우에 이 영향이 뚜렷하다.

예 : '우수 : '유수, '우주 : '주사, '우세 : '수세, '복 : '쑥.

4.7 모음/ɹ/(ə, ʌ).

중설(middle of the tongue)과 후설 그리고 반폐와 반개 사이에 걸쳐 있는 모음으로서 서 울말에서 환경에 의한 음가의 변동이 가장 많다.

ㄱ) [ɹ:]: 중앙 모음(central vowel) [ə]에서 약간 후퇴한 모음 또는 SCV 제 칠번 [ʌ]보다 전진한 평순 모음이다; [ə-] 또는 [ɹ+].

예 : '헌법, '헌것, '언문, '던테, '없다.

젊은 층은 [ɹ:] 대신에 다음에 기술하는 [ɹ]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ㄴ) [ɹ]: SCV 제 육번 [ʌ] 또는 그보다 다소 높은 후설 모음이다. 때로는 이 음가가 [ʌ]보다 더 후퇴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ʌ], [ʌ] 또는 [ʌ-].

예 : '엷다, '억, '먹다, '꺼라, '법, '집'어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젊은 층의 발음에서는 [ʌ:]와 [ʌ]의 구별이 없고 [ʌ:]를 모두

[ʌ]로 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구별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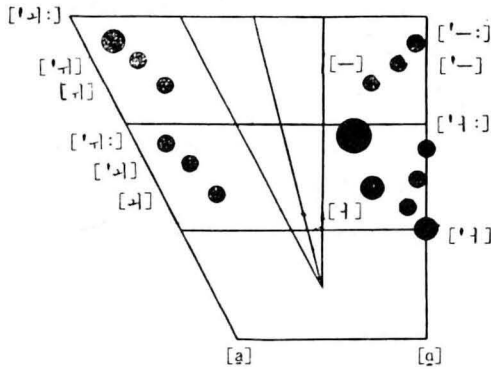
‘전기 ‘first term’: ‘전기 ‘electricity’ ‘업다 ‘carry on the back’: ‘없다 ‘lack’

ㄷ) [ɨ]. [ʌ:]에 비해 약간 낮고 더 후퇴한 모음 즉 반개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나는 후퇴한 [ə]모음이다.

예 : 어’머니, ‘세번, ‘할머니, 고’등어, ‘헌법, ‘말 없는 (cf. ‘없는).

ㄹ) 선행하는 소리가 반모음 /j/나 치조 및 경구개 자음일 때는 /ɨ/의 음가가 전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바, [ʌ:]는 중앙모음 [ə] 또는 그보다 높은 [e]나 [e-]로 나타나며 [ʌ]는 [ʌ+]로 실현된다.

예 : ‘별 ‘star’ (cf. ‘벌 ‘bee’), (cf. ‘저기 (cf. ‘어른), ‘먹 ‘throat’ (cf. ‘먹), ‘셨다 (cf. ‘벗다).



4.8 모음 /-/(w).

후설과 중설 그리고 폐와 반폐 사이에 걸쳐 있는 평순 모음으로서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가의 변동이 있다.

ㄱ) [ʌ-:]. SCV 제 팔번 [w]보다 약간 낮은 모음 또는 거기서 다소 전진한 모음이다; [w] 또는 [w+].

예 : ‘음식, ‘응시, ‘그림, ‘흙.

ㄴ) [ʌ-]. 위에 말한 [ʌ-:]보다 약간 낮고 전진한 모음이다.

예 : ‘옥, ‘흙, ‘은, ‘음성, ‘극장, ‘홀리다.

ㄷ) [ʌ-]. [ʌ-]보다 더 낮고 전진한 모음이다.

예 : ‘집으시면, ‘연극, ‘넓은.

ㄹ) 선행하는 소리가 치조 및 경구개 자음일 때는 /-/의 음가가 전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ʌ-:]와 [ʌ-]의 경우에 이 경향이 뚜렷하다.

예 : ‘슬슬 (cf. ‘음식), ‘트립 (cf. ‘그림), ‘죽 (cf. ‘옥), ‘뜨다 (cf. ‘끄다).

4.9 모음 /ɨ/(y).

한글 철자 /ɨ/는 대체로 단모음 [y]와 이중모음 [wi] 및 [ɥi]의 세가지 다른 소리로 실현

된다. 이 세가지 소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나느냐 하는 분포문제는 개인차도 있고 단어에 따라 서로 다른듯 하여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가령 '위나 '위기 같은 단어는 [wi] 또는 [qi]로 흔히 발음되나 [y]로는 잘 나지 않는 것같고, '위 나 '위 같은 단어는 [y]나 [qi]로는 발음되나 [wi]로는 나지 않는 것같다. 그러나 간단한 규칙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i) #기→[wi/qi]

ii) C+기→[qi/y]

위의 규칙을 풀어 설명하면, /기/가 첫 소리로 된때는 [wi]나 [qi]로 실현되고 /기/앞에 자음이 있을 때는 [qi]… [y]로 난다.

이제 여기서는 단모음으로 나는 /기/의 음가만을 고찰코자 한다.

/y/는 전설을 폐와 반폐의 위치에 올리고 입술을 둥그려서 내는 전설 원순 모음인데, ['기:]는 SCV 제 일변 [y]보다 낮고 후퇴해 있으며 원순 정도는 보통이어서 [y]나 불어의 [y]모음에 따르는 원순보다 훨씬 약하다.

예 : '위 늣다, '위다, '위다.

['기]는 위에서 기술한 ['기:]보다 약간 더 낮고 후퇴한 모음이며 원순작용도 더 약하다.

예 : '위틀다, '위다, '위납, '위엿 위엿.

['기]는 ['기]보다도 좀 더 낮고 원순 역시 아주 약해 원순작용이 아주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예 : '착취, '복귀, '대위가.

4.10 모음/시/(ϕ).

/시/는 대체로 단모음 [ϕ]와 이중모음 [we]로 실현된다. /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에 말한 두 가지 소리의 분포 문제도 설명이 어렵지마는, 앞에 자음이 오지않고 /시/로 시작되는 말은 [we]로 나고 자음이 있을 때는 [we] 또는 [ϕ]로 나는 경향이 있는듯 하다.

예 : '외국 [we:guk], '외상 [we:san], '되다 [dweda/dϕda], '괴다 [gwe:da/gϕ:da].

/시/(ϕ)는 전설을 반폐와 반개간에 올리고 입술을 오무려서 내는 전설 원순 모음인데, ['시:]는 SCV 제 이변 [ϕ]보다 약간 낮고 후퇴한 모음이며 원순 정도는 보통이어서 [ϕ]나 불어의 [ϕ]보다 약하다.

예 : '되다, '퇴학, '윈다, '쇠뿔.

['시]는 위에서 기술한 ['시:]보다 약간 더 낮고 후퇴해 있으며 원순 작용도 더 약하다.

예 : '되다, '되도록, '뇌염, '쇠망, '굉장히.

['시]는 ['시]보다도 더 낮고 후퇴해 있으며 원순작용 아주 약하다.

예 : '한 되, '진퇴, '열쇠, '잘 된다.

/시/는 원순 모음으로 발음되는 이외에도, 부주의한 대화체에서는 평순 모음 /기/로 나는 일이 많은데 특히 짧고 강세가 없는 [시]가 그렇게 많이 나고 때때로 ['시]와 ['시:]도 그

렇다.

- 예 : '한 되(테), '열쇠(세), '참외(에),
 '굉(깡)장히, '뵤(뵤)고,
 '뵤('뵤)다, '괴('계)상한.

4.11 비음화와 무성화

지금까지 기술한 모음은 /m/, /n/, /ŋ/같은 비음이 앞에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가 비음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 예 : [i] - 종이, 미음, 니은[niun],
 [ɛ] - 멩에, 처음에, 눈에,
 [ɛ̃] - 총애, 읍내 시내,
 [ã] - 항아리, 님아' 가난,
 [õ] - 증오' 혐오, 은 안온다.
 [ũ] - 망우리, 고무, 퉁우,
 [ə̃], [ã̃] - 멀다, 청어, 어머니,
 [ũ̃] - 상응, 남을, 가능성,
 [ỹ] - 상 위에 ' 뉘우치다,
 [õ̃] - 뵤, 번뇌, 영외거주.

또 짧은 모음은 무성자음(voiceless consonant)이 앞에 올 때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가 무성화 (devoiced)하는 일이 있는데, 무성자음 중에서도 특히 /ㅎ/나 /ㅋ, ㅌ, ㅊ, ㅌ, ㅍ/같은 유기음(aspirated sound)이 선행할 때에 모음이 무성화하는 일이 많다. 무성화는 밑에 (◌)으로 표시한다. 무성화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모음이 두번 반복될 때에는 대개 처음 모음만이 무성화 한다.

- 예 : [i] - 십팔, 킷킷거리다, 킷킷,
 [ɛ] - 헛갈리다, 헤치다,
 [ɛ̃] - 헛쌀, 캐캐거리다,
 [a] - 착착, 팔팔하다, 박박,
 [ɔ] - 축축히, 속속, 쿝쿝,
 [ɸ] - 축축히, 쿝쿝,
 [ɸ̃] - 흙손, 흑흑,
 [s] - 척척, 필필.

5. 맺 는 말

위에서 서울말의 정의를 검토 수정하고 음가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설명한 후 이

어서 서울말의 단모음 열개를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 들일
 은 위에서 기술한 모음은 주로 조심스럽고 점잖은 서울 말씨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서울말에도 스타일(style)의 차이가 있고 스타일에 따른 발음상의 차이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주의하고 허물없
 이 말하는 대화체에서는 /돈/을 /둔/, /하고/를 /허구/, /저녁/을 /제녁/등으로 발음하여
 음운의 교체를 나타낸다. 또 경멸적인 말씨나 감정적인 말씨에서는 /자식/을 /짜식/, /째식/
 /쨌식/, /재식/, /저식/ 등으로 발음하는 음운의 교체현상을 보일뿐 아니라 /자식/의 /ㅈ/
 모음을 기본모음 제오번 (ㄱ)에 육박하는 음가로 내는 음성적(phonetic) 차이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점잖지 못한 말씨에서 /'이새끼/, /'제기랄/의 /'이/와 /'에/가 기본모음 [i]
 와 [e]로 흔히 발음되는 것도 바로 스타일에 따른 음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이
 와같이 스타일에 따른 음운과 음성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논문
 에서는 조심스럽고 점잖은 스타일을 주로 다루었다. 다만 남녀에 따라 음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스타일의 차이로 구분하지 않고 음가의 차이점만을 밝혀 두었으며 연령에 따른 음가의
 차이는 서울말의 경의를 삼십대 이상의 연령층이 쓰는 서울말이라 하였으므로 삼십대 이하
 의 층이 쓰는 특이한 발음은 해당한 곳에서 지적하여 비교했다.

참 고 문 헌

- 김민수, 「신국어학」, 서울, 1964.
 Gim, Sheon-Gi, *Pheontis of Korean*. Seoul, 1971.
 Ramstedt, G.J., *A Korean Grammar*, Helsinki, 1939.
 Martint Samuel E., "Korean Phonemics", *Languag*, 28, pp.519-533.
 Martin, Samuel E., "Korean Morphophonemics", The Linguistic Sociey of America, 1954.
 Martin, Samuel E., et al. *A Korean-English Dictionary*, Yale University, 1967.
 Skaličková, Alena, *The Korean Vowels*, Archiv Orientalí XXIII, 1955.
 이기문, 「국어사 개설」, 서울, 1967.
 이송녕, 「국어학 논고」, 서울, 1960.
 ———, 「국어학 개설」, 서울, 1954.
 이희승, 「국어학 개설」, 서울, 1955.
 ———, 「국어 대사전」, 서울, 1961.
 Lee, Hyun Bok, "A Study of Korean Intonation", M.A. thesis presented to University of
 London, 1964.
 Lee, Hyun Bok, "A Study of Korean Syntax", Ph. D. thesis submitted to University of
 London, 1969.

Lee, Hyun Bok, "A Remark on the IPA Cardinal Back Vowels", *Maitre Phonétique* 130, pp. 26-29.

이현복 『국제음성학회 기본후모음의 실험적 고찰』, 한글, 146, 서울, 1970.

Cho, Seung-bog,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with a historical analysis*, Uppsala, 1967.

최현배, 「우리 말본」, 서울, 1955.

Han, Mieko, *Duration of Korean Vowels*, *Studies in the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II*, Univ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64.

허 응, 「국어 음운학」, 서울, 1970.

——, 「언어학 개론」, 서울, 1963.

<Synopsis>

A Phonetic Description of Korean Vowels

Hyun Bok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phonetic value of the Korean vowels, particularly those of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Standard Korean" or "Seoul Speech".

The paper begins by discussing the validity of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Standard Korean" or "Seoul Speech". A critical appraisal of the traditional definition reveals that it is no longer entirely adequate now as it used to be and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for substantial modifications of the current definition. A tentatively modified definition of "Seoul Speech" reads: "A Korean dialect spoken by educated people of over thirty years of age, born or brought up in Seoul area".

The phonetic description of vowels in this paper is based largely on the auditory judgment of the writer and the scale employed for description is the cardinal vowel system and the vowel quadrilater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by reference to which important allophonic variations of the vowel phonemes as conditioned by various features such as stress and/or quantity are examined and described. Thus vowels are examined in three different contexts:

- a) when they are stressed and long,
- b) when they are stressed and short,

c) when they are unstressed.

The results of the phonetic description show that vowels occurring in context a) tend to be nearer in quality to the cardinal points than in other contexts, those occurring in b) tend to centralize a little and those occurring in context c) tend to centralize still more. As an exception, however, the vowel /ʌ/ in context a) is very much centralized and retracted in context b).